

주간 전남 농업

VOL. 250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2019년 9월 둘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딸기 묘, 꽃눈 분화 확인하고 심으세요!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농기원, 겨울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우량 종자 분양
전남 시군 농정 동향 여수시, 서울·수도권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해외 농업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9. 09. 시카고 선물거래소)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6

- ▶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5~20도, 최고기온 : 25 ~ 27도)보다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3 ~ 9mm)보다 적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7

- ▶ 채소 : (예보) 역병, 고랭지 무·배추 무름병, 뿌리혹병
- ▶ 과수작물 : (예보) 과수화상병, 사과갈색무늬병·겉무늬썩음병

3. 농산물 관측정보 8

- ▶ 건고추, 마늘
- ▶ 대파, 양파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9

- ▶ 딸기 묘, 꽃눈 분화 확인하고 심으세요!
- ▶ 전남도 육성 차나무 신품종, 수도권 시민들에게 선보여
- ▶ 사슴 번식계절 가을, 세심한 관리는 소득과 직결
- ▶ 버려지던 음식물, 퇴비 자원으로 활용 가치 높인다
- ▶ ‘65℃ 6시간 건조’ 건고추 안전과 품질 높여요

6.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23

- ▶ 전남농기원, 겨울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우량 종자 분양
- ▶ 국민과 함께 만든 맛있는 우리 쌀 '해들' 출하
- ▶ 농약 품질 검사 개선으로 효율성·안정성 모두 잡는다
- ▶ 이른 추석에도 맛 좋은 사과 '아리수' 본격 유통
- ▶ “이제 추석에도 크고 달콤한 딸기 맛보세요”
- ▶ 사과 ‘꼭지’·배 ‘품종’·포도 ‘껍질’ 보면 맛이 보인다
- ▶ ‘꿀가루’, 우리 농산물의 색과 영양을 입다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2

- ▶ 여수시, 서울·수도권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 ▶ 순천시, 농수특산물, 미국 LA에서 판촉행사
- ▶ 나주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 곡성군, 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 ▶ 곡성군, 천적 이용해 건강한 친환경 딸기 생산 나서
- ▶ 고흥군, 최고품질 고흥한라봉 생산 현장기술 지원
- ▶ 보성군, “보성에서 같이 살아요” 귀농귀촌인 워크숍 실시
- ▶ 보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철통 차단방역
- ▶ 화순군, 명품 딸기 생산을 위한 꽃눈분화 검경교육 실시!
- ▶ 영광군, 추석맞이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 영광군, 사과대추 재배·관리 기술 교육 실시
- ▶ 장성군, ‘부자농촌 장성’ 만드는 푸드플랜, 군민이 함께 나섰다
- ▶ 장성군, 수출명품 쌀 재배 위해 영농 전문가 ‘컨설팅’

9. 해외 농업정보 45

- ▶ 일본, 분말가공으로 수요개척!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9. 09.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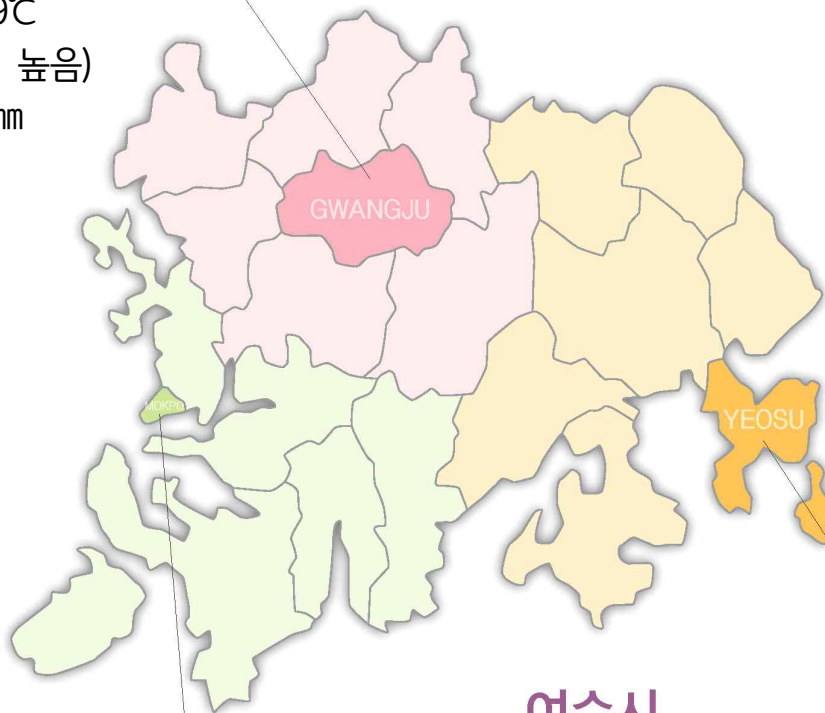
10. 농식품 빅데이터(관측)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49

- ▶ 농촌진흥청 농사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5.5℃
(평년대비 3.2℃ 높음)
- 최고기온 : 29.1℃
(평년대비 2.0℃ 낮음)
- 최저기온 : 21.9℃
(평년대비 3.3℃ 높음)
- 강 수 량 : 6.1mm



목포시

- 평균기온 : 25.1℃
(평년대비 2.4℃ 높음)
- 최고기온 : 28.1℃
(평년대비 1.2℃ 높음)
- 최저기온 : 22.0℃
(평년대비 2.5℃ 높음)
- 강 수 량 : 4.7mm

여수시

- 평균기온 : 25.1℃
(평년대비 2.3℃ 높음)
- 최고기온 : 28.3℃
(평년대비 0.9℃ 높음)
- 최저기온 : 22.0℃
(평년대비 1.8℃ 높음)
- 강 수 량 : 5.8mm



주요 병해충 발생정보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했으니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기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 예 보	병	·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해충	· 흰등멸구, 먹노린재, 열대거세미나방, 흑명나방
채소	· 예 보	병	· 역병, 고랭지 무·배추 무름병, 뿌리혹병
		해충	· 담배나방, 총채벌레
과수작물	· 예 보	병	· 과수화상병, 사과갈색무늬병·검무늬썩음병
		해충	· 돌발해충, 응애류, 노린재류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고추

↑ 생산 전망 : 2019년산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2019년산 고추의 생육상황 조사 결과(8. 20.), 평년대비 ‘좋음’ 24%, ‘비슷’ 41%, ‘나쁨’ 35%로 조사되어 생육이 평년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건고추 정식 이후 일부 지역에서 저온에 따른 냉해로 생육이 지연되었으며, 장마철 잦은 강우로 탄저병 등 병해 발생이 다소 많았기 때문이다.
- 고온과 가뭄으로 탄저병 등 병해가 없었던 전년대는 병해 발병이 높지만 평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되어, 단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결과(8. 20.), 2019년산 건고추 10a당 수확량은 평년보다 다소 적은 246~255kg으로 추정된다.
- 따라서 통계청의 2019년산 재배면적(31,644ha)에 농업관측본부의 추정 단수를 적용한 건고추 생산량은 7만 8천~8만 1천 톤으로 2018년산보다 9~13% 많으나 평년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격 전망 : 9월 도매가격 전월 대비 약세 전망

- 핫건고추 9월 화건 상품 600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전년보다 낮고, 전월(9,800원) 대비 약세인 9,3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이는 2019년산 건고추 재배면적이 증가하였고, 생육상황이 크게 나쁘지 않아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2019년산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산 건고추 주요 소비처인 가정수요가 감소하는 10월 이후 가격은 수확기 대비 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

저장 동향 : 2019년산 입고량 전년 대비 증가

- 저장·가공업체 표본 조사 결과(8. 20.), 2019년산 난지형 마늘 평균 입고가격은 생산량 증가로 전년과 평년보다 각각 40%, 49% 낮은 kg당 1,800원이었다.
- 난지형 마늘 입고량은 입고가격 하락으로 전년보다 11% 많은 10만 5천 톤으로 추정된다.

가격 전망 : 9월 가격 전월 대비 강보합세 전망

- 9월 깐마늘 도매가격은 저장마늘이 출고되면서 저장·가공비용이 반영되어 전월(3,990원/kg) 대비 소폭 상승한 4,100원 내외로 전망된다.



대파

↑ 출하 전망 : 9월 출하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9월 출하면적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경기와 강원지역의 대파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보다 3%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관측본부 표본농가 조사결과(8. 20.) 대파 전년 대비 생육상황은 ‘좋음’ 37%, ‘비슷’ 32%, ‘나쁨’ 31%로 나타나 전년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 9월 대파 단수는 강원지역 고랭지 대파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2%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9월 대파 출하량은 출하면적과 단수가 증가하여 전년보다 5% 내외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9월 가격 전년 대비 약세 전망

- 9월 대파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상품 kg당 1,600원 내외로 전망된다.



양파

↑ 저장 동향 : 2019년산 양파 입고량 전년 대비 증가 추정

- 저장업체 조사 결과(8. 20.), 2019년산 양파 입고량은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6%, 15% 증가한 71만 2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 8월 말 기준 출고량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4만 5천 톤 내외로 추정된다. 일부 업체에서는 저장 양파의 품위 저하를 우려하여 출고량을 늘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격 전망 : 9월 가격 전년 대비 약세 전망

- 9월 상품 kg당 평균 도매가격은 저장 양파 출하량증가로 전년(760원)보다 낮은 500원 내외로 전망된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9. 09. 09. 기준 / 단위 :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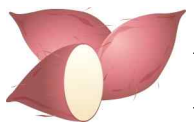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20kg	49,420	49,440	↑ 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980	46,420	38,860	↑ 27.2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35kg	198,200	198,200	↑ 1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98,200	177,800	154,933	↑ 27.9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0kg	27,600	28,000	↓ 3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720	39,450	28,673	↓ 3.7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20kg	21,200	20,200	↓ 55.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200	47,200	30,453	↓ 30.4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0kg	14,200	10,200	↓ 9.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640	15,650	14,510	↓ 2.1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8kg	4,100	4,100	↓ 6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20	10,600	8,910	↓ 54.0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00개	46,667	47,333	↓ 3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4,400	73,083	59,459	↓ 21.5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20개	23,600	21,600	↓ 4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480	44,700	29,883	↓ 21.0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30kg	470,000	470,000	↓	35.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9,600	727,875	479,000	↓	1.9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0kg	53,800	52,600	↓	16.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760	64,100	65,033	↓	17.3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20kg	90,000	90,000	↓	2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90,000	120,000	120,000	↓	25.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20kg	11,200	10,400	↓	3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0,000	16,000	20,040	↓	44.1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20kg	36,000	30,800	↓	4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960	71,650	46,210	↓	22.1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kg	2,040	1,720	↓	36.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108	3,215	2,200	↓	7.3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5kg	46,400	31,200	↑	2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960	38,200	33,203	↑	39.7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개	16,400	13,600	↓	2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800	21,700	13,770	↑	19.1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0kg	27,600	22,800	↓	31.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480	40,200	32,207	↓	14.3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5kg	15,000	18,400	↓	4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920	29,150	22,903	↓	34.5

과일류

사과(후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0kg	34,400	34,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200	-	-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5kg	46,800	43,800	↑ 7.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4,520	43,400	46,147	↑ 1.4

키위(수입)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0kg	41,600	41,200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1,920	42,000	43,233	↓ 3.8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00g	8,250	8,323	↑ 1.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8,376	8,099	7,829	↑ 5.4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kg	5,082	5,220	↓ 2.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77	5,234	5,177	↓ 1.8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30kg	503,000	501,600	↑ 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2,600	495,600	524,267	↓ 4.1

느타리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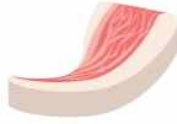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2kg	16,800	14,400	↑ 0.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080	16,700	16,420	↑ 2.3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2kg	9,800	8,900	↑ 1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200	8,400	8,680	↑ 12.9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00g	2,027	1,944	↓ 7.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79	2,188	2,180	↓ 7.0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30개	5,267	5,046	↓ 4.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4	5,540	5,703	↓ 7.6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09)	1주일전 (9/02)	전년대비	
1L	2,617	2,619	↑	0.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16	2,614	2,556	↑	2.4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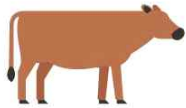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9. 09. 기준 /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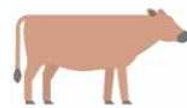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91	5,506	5,608	↑ 1.5	↓ 0.3
거세	7,081	7,130	6,948	↓ 0.7	↑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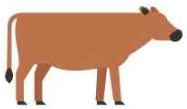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127	3,114	3,203	↑ 0.4	↓ 2.4
수	4,052	3,910	4,142	↑ 3.6	↓ 2.2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432	3,297	3,70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4.1	↓ 7.4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09	409	234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74.8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24	411	45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2	↓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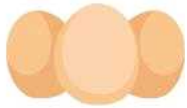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309	1,293	1,31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2	↓ 0.7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93	1,018	1,21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7.4	↓ 10.3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300	2,300	2,40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4.4



*자료 출처 :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 딸기 묘, 꽃눈 분화 확인하고 심으세요!

- 꽃눈 미분화된 딸기 모종 심으면 수확량 감소할 수 있어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딸기 묘 심기 전에 꽃눈분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기와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이에 따르면 딸기 꽃눈은 육묘후기에 저온처리가 필요하나 늦여름 고온(28℃ 이상) 상태에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경우 꽃눈 분화가 늦어지거나 균일하게 발달되지 않을 수 있다.
- 만약, 꽃눈분화가 형성되지 않은 묘를 심을 경우 수확시기가 1~2개월 정도 늦어지고 수확량도 감소할 수 있으며, 재배관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 도 농기원은 딸기 묘 심기 전에 꽃눈분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딸기 묘 3~5주를 준비해 가까운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꽃눈분화 현미경 검사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것을 권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김민정 연구사는“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해서는 70일 이상 육묘해야 하며 시설 내 차광과 환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시들음병, 탄저병, 응애 등 병해충 방제에도 힘써야 한다.”고 하면서,“도내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전남도 육성 차나무 신품종, 수도권 시민들에게 선보여

- 서울식물원에서 도시민에게 다양한 차 품종, 가공품 소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서울식물원(원장 김원영)지중해관에서 전라남도가 개발한 차나무 신품종 및 가공품 전시회를 9월 3일부터 15일까지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 이번 전시회는 지난 4월 24일 서울식물원과 연구협력 및 우호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후 수국 전시회에 이어 두 번째 행사로 차나무 31종, 가공품 32종을 전시하고 있다.
- 전시품목은 도 농기원에서 육성한 신품종 상녹, 명녹 등 7종, 외국의 주요 품종 24종과 농기원 개발 가공제품 12종, 농가제품 7종, 차 이용 과자, 음료 등 13종을 전시하여 식물원을 찾는 관람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 도 농기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시 소비자 선호도 등 시장성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차의 우수한 기능성을 홍보하여 차 소비를 확대하는데 있다며, 서울식물원은 주말에 2만 명 이상 관람객이 찾고 있어 전남 우수 농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기광연 연구사는 “차 소비 확대를 위해 우수한 품종개발과 함께 러시아, 중동, 미국 등에 시범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음료, 가공품개발로 소비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사슴 번식계절 가을, 세심한 관리는 소득과 직결

- 충분한 영양공급 우선... 수사슴 재생 뿔 잘라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사슴은 번식기인 가을철 사양관리에 따라 농가 경영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슴은 낮 시간이 짧아지는 계절에 번식활동을 하는 동물로 8월 하순부터 12월 사이에 평균 19~23일 주기로 발정이 온다.
- 번식기 적절한 사양관리로 번식률을 높이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된다.
- 암사슴의 번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과 포유로 줄어드는 체중을 회복시켜야 한다. 체중을 늘리기 위해 너무 많은 곡물사료를 주어 지나치게 살이 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유 등에 의해 부족해진 비타민과 광물질은 첨가제로 사료에 섞어 먹인다.
- 세심하게 관찰해 정확한 발정주기를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고려해 번식시기를 조절한다.
- 새끼를 낳은 암사슴은 새끼사슴(자록)에게 젖을 떼 후 발정이 온다. 암사슴 칸에 새끼사슴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두어 품질 좋은 마른 풀 사료와 곡물사료를 주면 젖을 빨리 땔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끼사슴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
- 수사슴은 발정기가 되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체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정상적인 번식 활동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곡물사료와 품질이 좋은 말린 풀사료를 주어 먹는 양이 적어도 영양소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단,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은 많은 곡물사료를 장기간 먹게 되면 장(腸) 기능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사슴은 번식기에 서열을 정하기 위해 성질이 사나워지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 재생 뿔을 잘라 줘야 한다. 발굽은 손질해 승가(올라타기)를 원활하게 하고, 몸 내·외부 기생충 구제를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이성수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 “사슴의 번식계절인 가을철, 적절한 사슴 사양관리로 번식률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세심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버려지던 음식물, 퇴비 자원으로 활용 가치 높인다

- 음식물 쓰레기 염분 조절 · 청과부산물 퇴비 제조 등... 농경지 안전 활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활용할 때 문제되는 염분을 효율적으로 낮추는 공정을 체계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다.
- 2015년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이 전국 300곳의 퇴비 원료인 음식물 쓰레기 염분 농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기준 2.0%이하를 만족하였으나, 일부 지역은 3.0%를 초과하였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음식물 쓰레기 퇴비 원료에 포함된 높은 염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퇴비 제조 시 첨가할 물의 양을 쉽게 알 수 있는 가수량 산정표를 제시했다.
- 염분 조절 방법은 우선, 음식물쓰레기의 염분을 간이염도계로 측정하고, 가수량 산정표의 물량을 첨가하여 탈수하면 최종 퇴비의 염분 기준 2% 이하로 효율적으로 맞출 수 있다.
- 이와 함께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버려지는 청과부산물을 활용해 질소 함량이 높은 퇴비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 지금까지 퇴비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토양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번 연속 퇴비화 공정으로 질소함량을 높여 양분공급의 역할이 더해졌다.
- 청과부산물과 톱밥을 7대 3으로 섞어 30일 동안 부숙 시킨 후 청과부산물을 15일 간격으로 30%씩 추가하면 부숙도가 높아 품질이 안정화 되며 질소 농도가 2.8%까지 높아진 퇴비를 만들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65℃ 6시간 건조’ 건고추 안전과 품질 높여요

- 농촌진흥청, 고품질 건고추 생산 위한 건조 조건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고춧가루의 원료가 되는 건고추를 안전하면서 고품질로 생산할 수 있는 건조 조건을 제시했다.
- 고추는 8월부터 늦가을까지 수확하며, 수확 후 바로 건조시켜 고춧가루의 원료인 건고추로 만든다. 고춧가루의 품질은 건고추가 좌우하기 때문에 고추 건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등에서 햇빛으로 말리는 자연건조, 건조기를 이용한 열풍건조 등으로 고추를 말리며, 건고추의 붉은 색을 살리기 위해 50~55℃를 선호하고 있다.
- 연구 결과, 65℃ 이상에서 건조한 고추는 미생물 오염도가 99% 감소했으며, 70℃로 온도를 높이면 99.99% 이상 감소했으나 건고추의 색이 어두워져 상품성이 떨어졌다.
- 이에 65℃로 6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55℃로 낮춰 건조하면 미생물 오염도는 99% 감소하고, 색도 어둡지 않은 건고추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류경열 유해생물팀장은 “고춧가루는 매운맛을 사랑하는 한국인의 밥상에 꼭 필요하고 많이 쓰이는 양념 중 하나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품질 좋은 건고추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고추의 병해충 관리 등 재배단계뿐만 아니라 건조 과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농기원, 겨울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우량 종자 분양

- 9월 20일까지 신청받아, 9월 중순부터 보급 예정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고품질 풀사료 생산을 위해 겨울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우량 종자를 분양한다고 9일 밝혔다.
-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겨울 사료작물로 척박한 환경에 적응력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 축산연구소에서는 작년부터 종자 분양을 시작하였는데 보급 농가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고, 올해도 종자 분양을 희망하였다.
- 이번에 분양할 트리티케일 종자량은 3.5톤으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와 혼합 파종시 50ha 이상 재배 가능한 양이다
- 분양 신청은 9월 20일까지 축산연구소(430-4233)에 하면 되고, 9월 중순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국민과 함께 만든 맛있는 우리 쌀 '해들' 출하

- 3일 출하, 재배 안정성과 밥맛이 우수하여 '고시히카리' 대체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외래 벼 품종(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을 대체 할 수 있는 최고 밥맛을 자랑하는 '해들' 햅쌀이 경기도 이천에서 3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한다고 밝혔다.
- '해들'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경기도 이천시, 농협과 함께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연구(SPP1))를 통해 개발한 조생종 최고 품질 벼이며, 올해 시범적으로 550톤을 생산하여 양재동 하나로 클럽 및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등에 출하할 계획이다.
- 국민과 함께 만든 우리품종 '해들'은 2017년 신품종선정위원회에서 밥맛과 재배 안정성을 인정받아 최고품질 벼로 선정되었다.

* 2017년 최고품질 벼 '해들' 식미검정(전문가, 소비자밥맛평가단) 결과

- 전문가 밥맛평가단(식량원): '해들'(0.61) > 아끼바레(0.04)

- 소비자 밥맛평가단(이천센터): '해들'(48%) > 고시히카리(29%) > 수원599호(23%)

- '해들' 품종은 조생종 벼로 도복에 강하고, 쌀 외관이 우수하며, 밥맛은 중만생종 수준으로 극상이며, 도열병, 흰잎마름병에 강하고 수발아 저항성이 강하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경기도 이천지역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외래 벼 품종(아끼바레, 고시히카리 등)을 우리나라 최고품질 벼 품종으로 대체 할 계획이다.

- 단계적으로 외래품종 보급종 생산을 축소하고, 국내육성 최고품질 품종으로 외래품종 대체 종자를 생산·공급할 계획이다.
- 2019년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와 연계 거점단지 8개소 및 실증포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까지 30개소에 최고품질 쌀 생산·유통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 외래품종 단점: 아끼바레(내병충성, 수량성이 낮음), 고시히카리(잘 쓰러짐 등)
- 농촌진흥청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유통전문가를 대상으로 홍보와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외래 품종을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2021년까지 조생종인 외래품종 고시히카리를 국내육성 ‘해들’ 품종으로 100% 대체할 계획이다.
- 이를 실천하기 위해 2018년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내에 원종급 종자 생산 채종포(2ha)를 설치하여, 2019년 108ha 시범단지에 종자를 공급하였다. 2021년까지는 1,000ha로 확대 할 계획이다.
- 2022년 이후에는 국립종자관리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종자 생산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해들’ 종자를 공급 할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농약 품질 검사 개선으로 효율성·안정성 모두 잡는다

- 농촌진흥청, 국제 기준과 현장 어려움 반영해 규제 개선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약제품의 품질 검사 중 유제와 액제의 가열안정성 시험법과 농약제형의 합격 판정 기준을 개선했다.
- 가열안정성 시험은 농약의 약효보증기간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54\pm 2^{\circ}\text{C}$ 에서 2~10주간 시험한다.
- 기존에는 시험 시 수화제나 입제 등 대부분의 제형은 실제 상품화될 포장용기에 담아 실험하나 유제와 액제는 유리관으로 완전 밀봉된 앰플 상태로만 시험하도록 돼 있었다.
- 하지만 농약 제품이 완전히 밀봉되지 않거나 유리관 개봉 작업이 미숙할 경우 앰플이 깨져 농약의 유효성분이 휘발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유리병의 밀봉 포장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제와 액제의 경우에도 실제 상품화될 포장용기로 시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용기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작업의 안전성도 높이게 된 것이다.
- 이와 함께 수용성 농약원제를 사용해 액제, 수용제, 입상수용제 등의 제품을 만들 경우, 기존에는 농약원제가 물에 100% 녹아야 인정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용제와 입상수용제의 경우 98%만 물에 녹고 2%는 녹지 않는 작은 물질(200메쉬 이하)이 함유돼 있어도 제품 생산이 허용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 이는 100% 녹는 물질로 수용제를 만들 경우, 사용하고 남은 농약은 완벽하게 밀봉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이른 추석에도 맛 좋은 사과 ‘아리수’ 본격 유통

- 단맛 · 신맛 조화, 햃사과 선물용 500톤 선봬... 품종 대체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이른 추석에도 소비자들이 새로운 품종의 햃사과를 즐길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리수’ 품종의 첫 대량 유통에 나선다.
- 지금까지는 올해처럼 이른 추석에도 잘 익은 상태로 먹을 수 있는 사과는 국산과 외국산을 통틀어 ‘홍로’ 품종이 유일했다.
- 이른 추석에 사과 구입을 망설이는 소비자가 늘면서 명절 이후 가격 하락, 관련 산업 위축 등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추석을 앞두고 9월 초부터 ‘아리수’ 500톤 가량을 선물용으로 선보인다. 대표적인 추석 사과로 꼽히는 ‘홍로’와 익는 시기가 비슷해 부족한 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품종 대체도 기대된다.
- 고온에서도 색이 잘 들어 남부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수확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거의 없고, 기존 품종보다 병에 강하고 저장성이 좋다.
- 꺾아놓았을 때 색이 변하는 갈변이 더디게 나타나 조각 과일 등 새로운 수요 창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 앞으로 생산자, 품목 농협, 대형청과, 소매업체 공동 출하로 고급 품종이라는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이른 추석용과 일상 소비용으로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이제 추석에도 크고 달콤한 딸기 맛보세요”

- 농촌진흥청 개발 가을 딸기 '고슬' 품종, 올해 시장에 첫 선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 개발 품종인 가을 딸기 ‘고슬’이 올 추석 처음 시장에 선보인다.
- 가을에 생산하는 ‘고슬’ 딸기는 열매가 크고 당도도 높다. 고온이나 낮 길이 변화에 상관없이 꽃대가 발생하는 국내 최초 ‘중일성’ 품종이다. 축성 품종(일계성)보다 수확이 한 달 가량 빠르다. 수확기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길고, 겨울에도 40g 이상의 큰 열매가 생산된다. 꽃대 당 꽃수가 적어 수확과 작업에 드는 노력을 30% 이상 덜 수 있어 재배가 수월하다. 기형과가 없으며 흰가루병에 강하다.
- ‘고슬’은 올해 품종 등록을 마치고 새로운 작형용 품종으로 보급을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에서 10ha가량 재배되고 있다.
- 올해는 추석이 빨라 일부 지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겠지만, 9월 하순부터는 전국에 유통을 시작해 누구나 맛볼 수 있을 전망이다.
- 추석에 맞춰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하려면 7월에 아주심기한 뒤 차광망과 쿨네트, 수막재배로 평균 기온을 낮추는 것이 좋다.
- ‘고슬’ 딸기의 구입과 재배 관련 내용은 농촌진흥청 고령지농업연구소 (033-330-1860)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사과 ‘꼭지’·배 ‘품종’·포도 ‘껍질’ 보면 맛이 보인다

- 농촌진흥청, 이른 추석에 맞는 과일 품종과 고르는 요령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평년보다 열흘가량 앞당겨진 올해 추석에도 맛있는 우리 품종 과일을 즐길 수 있다며 과일 고르는 요령과 다양한 품종을 소개했다.
- 올해 강수일수는 평년 수준이었으나 이상기상의 영향이 적고 총 일조 시간(별을 받는 시간)은 늘어 과일의 품질도 좋을 전망이다.
- 대표적인 추석 과일인 사과는 들었을 때 단단하고 묵직하며 꼭지 부위까지 고르게 색이 든 열매가 좋다.
- 꼭지가 잘 붙어 있고 푸른빛을 띠면 싱싱한 사과다. 꼭지가 시들고 잘 부서진다면 수확한 지 오래된 것이다.
- 이맘때는 우리 품종 ‘아리수’와 ‘홍로’를 구입할 수 있다. ‘아리수’ 품종은 당도와 산도 비율(당도 15.9°Bx, 적정산도 0.43%)이 적당하고 식감이 좋다. ‘홍로’ 품종은 당도가 높고(14.5°Bx) 신맛이 적으며(0.25~0.31%) 과육이 단단하다. 크기는 홍로(300g)가 아리수(285g)보다 크다.
- 일반적으로 배는 전체적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꼭지 반대편에 미세하고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
- 다만, 배는 구매 전에 품종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황금배’ 품종은 봉지를 씌우지 않는 재배 방식으로 인해 껍질에 얼룩덜룩한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맛은 더 좋다.

- 이른 추석에 구입할 수 있는 우리 품종 배는 ‘원황(560g)’, ‘황금배(450g)’, ‘화산(540g)’ 등이며, 도입 품종으로는 ‘신고(550g)’ 등이 있다. ‘원황’ 품종은 노란 빛이 도는 밝은 황갈색을 띤다. 당도는 13브릭스(oBx) 내외로 높고, 과즙이 풍부하며 씹는 맛이 좋다. ‘황금배’는 껍질이 녹색과 황금색을 띠며 과육이 아삭하고 물이 많다. 당도는 13브릭스(oBx)로 새콤한 맛도 느낄 수 있다.
- 포도는 알이 굵고 색이 진하며, 송이가 적당히 큰 것을 고른다. 송이가 너무 크거나 알의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덜 익은 알이 섞여 있을 수 있다.
- 표면에 묻은 하얀 가루는 천연 과실 왁스로, 보얀 가루가 있을수록 잘 익은 것이므로 안심해도 된다.
- 이 시기에 구매할 수 있는 품종으로는 캠벨얼리와 거봉, 국산 품종으로는 색깔이 좋은 ‘흑보석’이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과수과장은 “이른 추석에 출하되는 과일은 대체로 저장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소비할 정도만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명절 이후에 출하되는 다양한 제철 과일도 즐겨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꿀가루’, 우리 농산물의 색과 영양을 입다

- 농촌진흥청, 기능성 · 색감 더한 꿀가루 제조 방법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리 농산물 추출물을 더한 과립 형태의 꿀가루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 꿀은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나 지나치게 단맛이 강하고 끈적여 사용이 제한적이라, 최근 소비자들은 덜 달면서 사용하기 편한 과립형태의 제품들이 시장에 선보이기를 바라고 있었다.
-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우리 농산물의 추출물을 제조한 후 꿀에 첨가해 진공상태에서 동결건조한 다음 과립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 이 방법을 이용하면 안토시아닌 색소 C3G, 루틴(rutin), 가바(GABA), 디엔제이(1-DNJ),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등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이 풍부한 오디와 봉얌은 물론 인삼(꽃), 생강, 산수유, 삼채, 구기자, 양배추, 꾸지뽕(열매), 비타민 등 농산물부터 영양제까지 다양한 꿀가루 제품을 만들 수 있다.
- 과립형태로 제조해 휴대와 보관이 간편해져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고 유통 또한 편리하다.
- 또한 꿀의 영양과 농산물의 기능성분을 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취향에 맞게 꿀을 고를 수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특허 등록하고, 기술이전을 진행 중이다.

*출처 : 농촌진흥청



여수시, 서울·수도권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 3일~10일, 돌산갓김치, 거문도해풍썩차, 멸치 등 시중보다 10~20% 할인 판매 -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서울과 수도권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 시는 직거래장터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에 마련한다.
- 장터에서는 돌산갓김치, 거문도해풍썩차, 멸치 등 지역 대표 농수축산물을 시중가보다 10~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농수축산물 판로개척과 고객 확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출처 : 여수시



순천시, 농수특산물, 미국 LA에서 판촉행사

- ‘남도의 맛과 순천의 향기 담아’ LA 교민 입맛 사로잡아 -

- 순천시(시장 허석)는 김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한 판촉단을 꾸려,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미국 LA 시온마트(4개소)에서 ‘남도의 맛과 순천의 향기 담아’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행사에 나섰다.
- 참여업체로는 순천농협남도식품, 매일식품, 몽실이, 쌍지뜰, 씨스타, 경덕농수산이 참여한다.
- 또한 품목으로는 김치류, 반찬류, 젓갈류, 장류, 보리떡, 누룽지, 해조류, 건어물 등 총 40여개 품목, 20만달러(한화 2억 3천만 원) 상당으로 LA 현지 교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 판촉단은 현지 언론매체(TV, 라디오, 신문)와 인터뷰를 시작으로, 수출업체 관계자와 수출품목을 협의하고, 현지시장을 방문해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 판촉단장으로 참여한 김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수한 농수특산물이 미국시장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을 확대해, 순천시의 홍보는 물론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순천시는 지난 8월까지 농수특산물 수출 실적이 2,900톤, 65억으로 올해 목표 60%를 달성했고, 금번 판촉행사를 성공리에 전개해 올해 수출 목표 110억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출처 : 순천시



나주시, 추석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시중 대비 10~30% 저렴한 가격 공급 ... 생산자-소비자 상생 농업 가치 구현 -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4일부터 6일까지 3일 간 운영한다.
- 빛가람동 행정복지센터 옆 공영주차장에서 열리는 이번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 농가(업체)가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 판매 품목으로는 나주를 대표하는 과일인 나주 배와 배즙을 비롯해 잡곡, 수삼, 장류, 과일즙 등을 시중 대비 1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소비자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3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1kg)을 사은품으로 증정하며, 주요 농·특산물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 강인규 나주시장은 “명절맞이 직거래 장터는 소비자에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생산자는 얼굴 있는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해 소득을올리는 신뢰와 상생으로 가득한 농업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며, 지역민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출처 : 나주시



곡성군, 풍성한 한가위를 위한 대도시 직거래장터 운영

- 담양군 추석맞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운영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추석을 맞이해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자매결연 도시 및 대도시 직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직거래 행사는 서울 관악구, 종로구, 강동구, 마포구, 양천구, 서울광장,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운영된다(세부일정 및 장소는 아래 표 참조). 행사장에서는 곱감, 잡곡, 토란대, 건나물 등 추석 제수용품을 시중가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재배농가가 직접 판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 이외에도 곡성군은 온라인 오픈마켓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추석맞이 판촉행사를 통해 농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우수한 농산물을 준비한만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직거래장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곡성군



곡성군, 천적 이용해 건강한 친환경 딸기 생산 나서

- 저지방한우 브랜드 육성 법인체 '담우' 최형식 담양군수 간담회 추진 -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현자)는 4.4ha 면적에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적용한 딸기 재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군은 지난 28일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딸기 재배 농업인들에게 천적을 이용한 딸기 병해충 종합관리(IPM : Intergrated Pest Management) 교육을 실시했다.
- 참석자들은 딸기 정식 전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실시 요령과 병해충 발생 예찰 요령에 대해 안내 받았다. 또한 곡성군은 교육을 통해 농약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 병해충 종합관리(IPM)란 병해충의 발생량을 정밀 예찰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병해충 밀도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이는 농약의 과다 사용을 억제해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면서도 생산효율을 극대화 하는 방법으로 친환경재배의 기본이 된다.
- 일반적으로 딸기에는 점박이 응애, 진딧물, 작은뿌리파리가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곡성군은 이들의 천적인 칠레이리 응애, 콜레마니 진딧벌, 마일즈 응애 등을 사용해 최적의 IPM을 유지할 예정이다.

*출처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고흥군, 최고품질 고흥한라봉 생산 현장기술 지원

- 품질관리 위한 당·산도관리 중점 기술지도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최고품질의 고흥한라봉 생산을 위해 친환경한라봉영농조합법인과 함께 한라봉 당·산도관리 중점 현장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 한라봉은 당도 13°Bx 이상, 산도 1.0%이하일 때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새콤 달콤한 맛이 나는데 고품질의 한라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과실의 신맛을 내는 산 함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 군 관계자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한 최고품질 한라봉 생산을 위해 이달부터 수확기까지 월 2회 전체 한라봉 재배농가를 방문하여 당·산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농가별 맞춤형 산도관리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며, 생육단계별 병해충 관리, 과원 관리 등에 대한 현장교육과 평가회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흥한라봉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따뜻한 기후, 충분한 일조량,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되어 그 맛이 일품인 고흥한라봉은 40농가에서 13ha를 재배하여 연간 22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출처 : 고흥군



보성군, “보성에서 같이 살아요” 귀농귀촌인 워크숍 실시

- “보성에서 키워가는 꿈 이야기”를 만든 귀농인의 열기 -

- 보성군 귀농귀촌협의회는 지난 27일 전남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에서 보성군에 귀농귀촌인 60여명과 함께 “보성에서 키워가는 꿈 이야기”라는 주제로 하계워크숍을 실시했다.
- 이번 귀농귀촌인 하계 워크숍은 보성군 귀농귀촌이 빠르게 적응하고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주요 작목별 선배 귀농인의 조언, 각종 귀농인 지원사업 및 정책 변경사항 공지, 지역주민과의 친화와 정착에 필요한 자료 제공, 성공 선배 귀농인의 경험 청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워크숍에서는 신입 귀농인을 소개해 귀농인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농장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공유했다. 또한, 선배 귀농인의 성공담을 공유하는 등 앞으로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공적인 귀농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 됐다.
- 보성군 농축산과 조영우과장은 “귀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겠으며, 귀농·귀촌인도 주민 친화적인 생각과 노력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 보성군



보성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 철통 차단방역

- 보성군은 지난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해 농장 일제청소 및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 이번 일제소독에서 돼지농가는 자체보유한 소독시설을 이용하여 농장주변과 축사 내외부를 스스로 소독하고, 영세축산농가는 보성군 보유 소독차량 및 보성축협 가축공동방제단 소독차량을 이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을 미연에 방지했다.
- 이를 통해 축산농가에 여름 휴가기간 해외여행 후 남아있을 수 있는 가축전염병 전염 가능성을 제거하고, 추석명절 기간 귀성객 이동에 대비하는 철통 차단방역이 준비됐다.
- 군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제와 예방백신이 없고 치사율은 100%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으로 철저한 소독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더불어 감염된 돼지나 훈제고기 등 축산물을 통해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축산물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축산인의 방역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한편, 보성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위해 양돈농가에 40여 톤의 축사 소독약과 야생멧돼지 기피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공동방제단 7개단을 동원하여 주1회 이상 농장 및 축사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보성군



화순군, 명품 딸기 생산을 위한 꽃눈분화 검경교육 실시!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8월 28일부터 딸기 재배농가 31농가를 대상으로 명품 딸기 생산을 위한 꽃눈분화 검경실을 운영 중이며, 지난 8월 29일 새내기 영농체험교육생 및 딸기농가 15명을 대상으로 딸기 꽃눈분화 검경 이론·실습 교육을 실시하였다.
- 딸기는 겨울철 가장 인기 있는 과일로 고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딸기가 가장 비싼 시기인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빨리 생산되는 것이 중요하다.
- 꽃눈분화는 딸기가 생육하는 도중 영양 조건·육묘기간·일조시간 등 필요조건이 다 차서 꽃눈을 형성하는 것으로, 꽃눈분화를 확인하여 심는 것이 딸기 꽃피는 시기를 앞당겨 결국은 수확 시기를 앞당기는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 한편, 딸기재배 농가는 딸기묘 3~4주를 뽑아 농업기술센터를 찾으면 현미경으로 생장점을 관찰해 딸기의 꽃눈분화 진행정도를 알 수 있어 적절한 정식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 ‘딸기 꽃눈분화 검경 교육’은 귀농하여 딸기 재배를 준비 중인 새내기 영농체험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론교육으로 딸기 꽃눈분화의 의미, 검경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고 이론교육 후 직접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하였다.

*출처 : 화순군



영광군, 추석맞이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8. 27.부터 개최된「추석맞이 영등포구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필두로 추석대목 기간에 서울광장을 비롯한 자매결연 자치구 등 수도권 8개 장소에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 우리군 우수 농수특산물 판로확보를 위해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영광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중 소비자가 선호하는 모싯잎송편, 찰보리식품, 잡곡, 굴비, 천일염 등 20여개 품목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급하여 대도시 소비자 고정고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 한편, 군관계자는 자매결연 자치구청장 및 행사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유통체계개선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자치구와 도농교류를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대도시 소비자 확보를 위해 영광군 우수농산물 홍보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출처 : 영광군



영광군, 사과대추 재배·관리 기술 교육 실시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4일 영광군 대마면 지역특화품목 종합유통시설에서 관내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 및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대추 재배·관리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 이번 교육은 사과대추 작목 농가들이 ‘2016년부터 묘목을 심어 재배하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라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실시했다.
- 이날 강사로 초청한 한반도농원 최덕현 대표는 대추나무 거름주기 요령, 병해충 방제 방법, 전정 등 재배·관리 기술 전수와 함께 자신의 마케팅 전략을 전해 주었으며, 현장에서 직접 재배·관리 기술을 전해 주는 등 농가들에 유익한 교육을 해주었다.
- 교육에 참석한 사과 대추 작목반 회원들은 “그동안 사과 대추를 재배하면서 묘목판매업자에게 재배·관리 기술을 교육받고 전문적인 지식 없이 재배를 해왔었는데, 전문가에게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고 하니 먹먹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교육이었다.”라면서 앞으로 사과대추 재배에 대해 확신을 하고 사과대추 재배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영광군 사과대추는 28농가 78,896㎡에 재배를 하고 있으며, 군 관계자는 “앞으로 임업인들에 가려운 등을 시원하게 긁어 줄 교육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영광군



장성군, ‘부자농촌 장성’ 만드는 푸드플랜, 군민이 함께 나섰다

- 장성군민 400여 명 완주서 로컬푸드 시스템 교육... 푸드플랜 구축사업 추진 일환 -

- 장성군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푸드플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로컬푸드 시스템 우수 사례인 완주군에서 현장 교육을 진행했다.
- 이번 교육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농산물의 출하와 유통 구조에 대해 이해하고, 고산 평치마을의 마을단위 가공업체 운영 사례와 농업인 공동 가공 이용시설인 농민가공센터의 운영에 대한 강의와 현장견학으로 구성되었다.
- 특히 이번 교육은 푸드플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장성군의 전략을 농가에 전달하기 위해 지난 8월 초 전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순회 이론교육의 후속교육으로, 체계적으로 쌓아올린 이론에 현장견학을 접목해 푸드플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 장성군은 향후 푸드플랜의 중요한 자원인 귀농인,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핵심리더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과정 이후에는 푸드플랜 참여 농가의 조직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지역농산물의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현장교육에 참여한 차대준 장성군이장연합회장은 “푸드플랜은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푸드플랜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농촌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장성군



장성군, 수출명품 쌀 재배 위해 영농 전문가 ‘컨설팅’

- 29일, 명품쌀 계약재배 농가 대상... 23일부터 ‘조명’ 품종 본격 수확 시작 -

- 장성군이 수출명품 쌀 재배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군은 지난 8월 29일 농촌진흥청 영농 전문가들이 수출 명품쌀 계약재배 농가를 찾아, 현장에서 직접 맞춤형 토론과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교육 및 종합컨설팅을 시작해 지금까지 5회째 이어져 오고 있다”며 “현장교육과 컨설팅에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만족도도 높다”고 전했다.
- 이날 교육에 참석한 수출단지 대표 변영연 씨는 “최근 첫 수확을 하며 현장에서 어려운 점들을 많이 느꼈는데, 전문가들의 현장 컨설팅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장성군은 장성군농협통합RPC, NH농협무역과 계약재배를 통해 200헥타르(ha) 면적에 조명 1호 품종을 단지화하여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시장은 물론 러시아, 미국 등 해외로도 수출하고 있다
- 이밖에도 장성군은 벼농사에 필요한 상토 및 맞춤형 비료, 육묘상자처리제, 공동방제 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 작년에는 단보 당 524kg의 수량으로 도내 쌀 수확량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출처 : 장성군



일본, 분말가공으로 수요개척!

- 최근 일본에서는 농산물을 건조해서 분말로 만드는 심플한 가공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청과물이나 곡물 등 다양한 품목으로 이용가능하고 지금까지 폐기 되었던 야채의 겉부분이나 과일의 껍질도 활용할 수 있다.
- 보존성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체상태인 6차산업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야채나 과일의 겉부분 까지 활용 -

- 아이치 현(愛知県)의 JA(일본 농업협동조합)아이치비토우(あいち尾東)는 이전에 폐기하던 브디베르의 겉부분을 분말 가공하여 양과자점 등에 판매하고 있다.
- JA는 영양소가 풍부한 브디베르를 중점작물로 재배하고 있었으나 운송 시 작물이 썩거나 상처가 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로스(Loss)가 농가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찾던 중 겉부분이 영양가를 특히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2017년부터 겉부분을 분말 가공하여 납품하기 시작했다.

- 분말가공의 장점 -

- 농산물의 분말가공은 이전까지 버려졌던 부분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야채의 겉부분이나 과일의 껍질을 사용하면 매입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낼 수 있으며, 껍질부분이 함유하고 있는 영양성분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 분말의 형태는 2차 가공 시에도 밀가루 등의 가루 종류와 상성이 좋기 때문에 판로를 확장하기 쉬우며 장기보존이 가능한 점과, 가공에 고도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매력적인 점이다.

- 식품로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분말가공 -

- 현재 일본에서는 식품로스 및 폐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정부, 지자체, 기업 등 다방면에서 해결책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태이며 어떤 방법으로 폐기되는 양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하는 중이다.
- 겉모양이 이상한 과일이나 야채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스프나 주스로 만들어서 판매하기, 야채시트를 만들거나 크레용 같은 물건을 제작하여 사용하기처럼 분말가공도 한 가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시사점 -

- 일본의 식품로스 줄이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분말형태의 가공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
- 분말가공 이외에도 유통기한 표시방식 개정이나 식품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고기능성 필름 용기를 도입하는 등 식품로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성이 사료됨.
- 국내에서도 분말가공이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발맞추어 미리 분말가공에 대한 가공법이나 첨가물법에 대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9. 09.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대량 공급으로 인해 다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 -

- 밀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5% 하락했다. 밀 선물가격은 옥수수 유출 약세와 더불어 전 세계 밀 공급량이 풍부하다는 압력을 받아 하락세를 보였다.
- 옥수수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9% 하락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의 온화한 일기예보가 생산전망을 강화하고, 주간 미국 수출 판매 데이터가 무역 기대치보다 낮아짐에 따라 하락세로 마감했다.
- 대두 선물가격이 전일 대비 0.4%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기술 매수, 옥수수 하락, 온화한 미국 날씨 전망으로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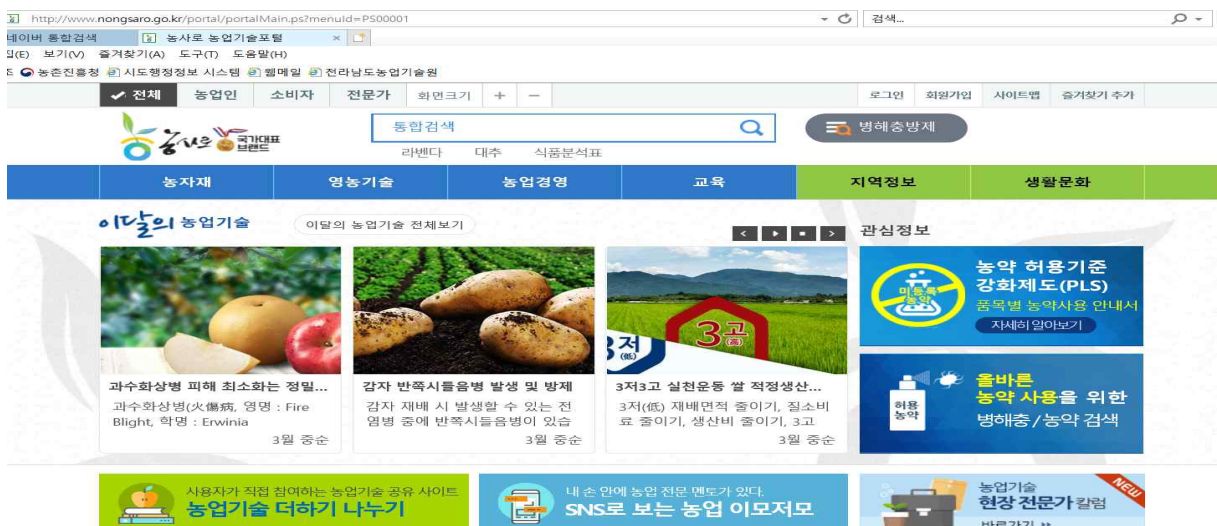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농촌진흥청 농사로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경영기술, 농식품소비트렌드,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농식품산업동향,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관측정보에서는 년도별로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 농사에 필요한 농업관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 (www.aglook.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보소개, 농업전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관측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버섯, 관측속보, Daily&Weekly를 해당년도와 월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엽근채소는 배추, 무, 양배추, 당근
 - 양념채소는 건고추, 양파, 마늘, 대파
 - 과일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수입과일
 - 과채는 오이, 애호박,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풋고추
 - 축산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 곡물은 쌀, 콩, 국제곡물, 감자
 - 버섯은 느타리, 양송이
- 품목동향에서는 가격&반입량, 도매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격&반입량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등
 - 도매가격동향은 품목별로 전일가격, 당일가격, 등락률 등
- 알림광장의 관측동영상에서는 농업관측을 동영상으로 보여준다.

품목	가격		전일대비 등락률(%)
	전일	당일	
양송이	17,555	19,179	9.3
풋고추	49,294	47,565	3.5



청렴한세상 - 청백리 정봉 선생 일화



정봉은 조선중기 성종에서 중종 때의 문신으로 당시 정승인 성희안과



매우 친한 사이였다. 정봉이 당시 외직인 청송부사로 발령나자



얼마후 성희안이 편지를 보내 잣과 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봉은 친구 성희안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지방의 특산물을 중앙의 높은 관리에게 선물하는 일은 관행처럼 여겨졌으니, 하물며 친한 친구사이의 정탁이라 어려운 일도 아니었던만 절친의 정탁을 명분없는 일이라며 거절한 정봉.

성희안 역시 정봉의 강직한 태도에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워 했다고 하니, 스스로의 실향을 지키며 청결하게 살아온 청백리의 정신이 어떠했는지 짐작할만 하다.

국민권익위원회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주 (9월 16일) 주간전남농업이 추석 연휴

관계로 휴간할 예정입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이 되길 기원하며

가족들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간 전남농업

VOL. 25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